

# Pertamina, SK와 석유화학 협력

## 종합 생산설비 건설 MOU 체결 ... 재정규모 · 시행일정은 미언급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Pertamina와 SK종합화학이 석유화학 종합 생산설비 건설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가 12월4일 보도했다.

카렌 아구스티아완 Pertamina 사장은 “협력 프로젝트는 Pertamina의 석유화학 부문 사업 확장 전략의 하나”라며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산업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Pertamina는 SK종합화학과의 제휴해 건설할 석유화학 종합 생산설비 프로젝트의 재정규모와 시행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경제가 6%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산업 기반이 약해 연간 50억달러의 수요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건설에서 자동차, 전자산업, 식품·음료 포장 등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 개발이 계속될수록 인도네시아 국내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석유기업 중 자산규모 5위인 Pertamina는 2025년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원가치 극대화를 위해 정유와 석유화학산업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카렌 아구스티아완 사장은 “MOU 체결이 양사의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주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제품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04>